금속투쟁속보 37호

발행일 2025년 8월 18일(월)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정부, 노동자 주체 중심에 두고 상생형 일자리 재설계해야”

금속노조, 상생형 일자리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 열어 … 정부 역할 촉구

광주, 구미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개선하려면 이재명 정부가 제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존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역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와 화섬식품노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8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두고 토론회를 벌였다. 논의 대상은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구미형 일자리 ‘LG-HY BCM’ 두 곳이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 초기에는 기대가 많았으나, 여러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아쉬움과 우려가 크다. 오늘 토론회가 지역상생형 일자리들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현황과 개선 방향 발제는 권오산 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이 맡았다.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 논의를 시작해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으로 GGM을 만듦으로서 시작했다.

권오산 국장은 “GGM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로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4대 핵심 과제로 삼고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대담한 사회 실험이었다”고 밝혔다.

현실은 달랐다. 권오산 국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금 애초 약속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다”며 “노동자 주체 미형성, 유명무실 사회적대화, 노동기본권 침해, 사회적 임금 이행 부실,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 청년 이직 급증, 현대차 의존 심화, 무책임한 지배구조 등 한계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산 국장은 GGM의 구조적인 한계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동자 주체가 배제된 것 △협의 기구에 불과한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 대한 사측의 부당 개입 △인권침해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아 광주시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 △불안정한 임금체계와 주52시간 장시간 노동 △높은 퇴사율 △사측의 반노조 정책 등을 나열했다.

GGM 사측은 청년 일자리를 표방했지만, 육아휴직자를 차별하기도 했다. 육아휴직기간에 비례하여 격려금과 직능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 평가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인사고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을 차별했다.

권오산 국장은 GGM이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노동 존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주체를 대화와 상생을 주체로 인정해야 문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말이다. 2대 주주라며 뒷짐 진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권오산 국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단지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며 "청년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할 것인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제조업 공동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례이자 시험대" 라고 평했다.

권오산 국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필요한 것은 노동 없는 상생이 아니라 권리를 인정한 상생" 이라며 "제조업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인 지금 노동존중사회와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내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노조 활동 궁금하고 노동운동 꿈꾸는 청년이라면 '여기'

금속노조, 11일부터 나흘간 신규 청년 활동가 교육과정 열어

금속노조가 노동운동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가 양성 과정을 마련했다.

금속노조가 11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청년 활동가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준비한 이번 교육과정에 모두 스물여섯 명이 참가했다.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참가자들은 나흘간 금속노조 투쟁·교섭 역사와 강령을 배웠다. 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미조직 전략 조직과 노동안전 보건 등 금속노조 부서 사업과 상근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금속노조에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일, 8일 양일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하고 민주노조 역사 등을 교육했다. 금속노조 교육을 끝마치면 공공운수노조가 18일부터 5일 동안 해당 과정을 잇는다.

장창열 위원장은 참가자들에 "2001년 태어난 이십 대 청년 금속노조에 새로운 청년 활동가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늘어야 한다. 4일간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익혀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